



#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주님 승천 대축일(성모 성월)  
제30권 25호(다해) 2010 · 5 · 16

## [묵상]



예수 승천<862년, 채색상화, 성라자로 성당, 베니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께서 올라가신 하늘은  
새로운 곳이 아니라  
그분께서 떠나오셨던 하느님 오른쪽  
저희가 머물 곳을 마련해놓으실  
예수님의 본 고향.

예수님의 떠나가심은  
저희를 버려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만의 주님에서  
저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함이고  
지금의 슬픔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의 기쁨을 위함이니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선포,  
수난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완성된  
이 세상에서의 여정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돌아가시지만,  
이 일의 증인으로  
저희들을 내세우시니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고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통해 완성될  
천상의 예루살렘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쉽이 없으리. -桓-

martinlee0501@hanmail.net

##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     |                              |                                |
|-----|------------------------------|--------------------------------|
| 수요일 | 저녁 미사                        | 오후 7:30                        |
| 목요일 | 아침 미사 (레지오)<br>저녁 미사         | 오전 9:00<br>오후 7:30             |
| 금요일 | 아침 미사                        | 오전 8:30                        |
| 토요일 |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br>특전미사 (청년미사) | 오전 8:30<br>오후 7:00             |
| 주일  | 아침 미사<br>학생미사(영어)<br>낮 미사    | 오전 7:30<br>오전 9:30<br>오전 11:00 |

## 주간 행사표

|     |                                                                                                                                                                                       |                                                                                              |
|-----|---------------------------------------------------------------------------------------------------------------------------------------------------------------------------------------|----------------------------------------------------------------------------------------------|
| 화요일 | 매론 청년회 성경공부                                                                                                                                                                           | 오후 7:30                                                                                      |
| 수요일 |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br>거룩한 독서(Lectio Divina)<br>레지오 마리아                                                                                                                                  | 오후 2:00<br>오전 10:00<br>오후 8:00                                                               |
| 목요일 | 병자영성체 (1째주)<br>성 시간 (첫목요일)<br>레지오 마리아<br>성령 기도회<br>예비자 교리반                                                                                                                            | 오전 9:30<br>저녁 미사후<br>오전 10:00<br>오후 8:00<br>오후 8:00                                          |
| 금요일 |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br>M.E. Sharing(3째주)<br>울뜨레아 (4째주)                                                                                                                              | 오전 9:30<br>오후 7:00<br>오후 8:00                                                                |
| 토요일 | 유아세레 (작수달 4번째 토요일)<br>매론 청년모임                                                                                                                                                         | 오후 6:00<br>오후 5:00                                                                           |
| 주일  |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br>글로리아 성가대<br>1째주 - 구역장/만장 회의<br>2째주 - 모임의 날<br>•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br>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br>• 꾸리아<br>3째주 - • 빈첸시오회<br>• 행사의 날<br>4째주 - 가정의 날 / 사목회<br>첫째/셋째주-대학부(PACEM) | 오전 중<br>오전 9:00<br>오후 1:00<br>오후 1:00<br>오후 1:00<br>오후 2:30<br>오전 9:00<br>오후 1:00<br>오후 2:00 |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진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             |                                                                                       |
|-------------|---------------------------------------------------------------------------------------|
| 토 요<br>특전미사 | (연)                                                                                   |
|             | (생)성낙호 요셉 & 은혜 실비아, 홍주희 안나 가정,<br>제65차 ME가족위해 기도해주신 분들                                |
| 주 일<br>낮 미사 | (연)이금순 마리아, 박준구 요한, 이현호 요한,<br>김종환 야고보, 고준희 제임스, 소수연 안나,<br>이영자 마리아, 김요셉, 엄은섭 도로테오    |
|             | (생)이덕철 루카 & 순자 비비안나 가정,<br>홍주희 안나 가정,<br>사도의 모후 pr. 상지의 좌 pr.<br>제65차 ME가족위해 기도해주신 분들 |

### 오늘의 전례

|       |                                                                                                                                                                                                                                                                                                                                       |
|-------|---------------------------------------------------------------------------------------------------------------------------------------------------------------------------------------------------------------------------------------------------------------------------------------------------------------------------------------|
| 제 1독서 | 사도행전(Acts of the Apostles) 1,1-11                                                                                                                                                                                                                                                                                                     |
| 화답송   | ○환호 소리 높은 중에 하느님 오르시도다.<br>하느님 오르시도다.<br><br><전례성가 73, 예수 승천 대축일><br>○만백성 너희들은 손뼉을 쳐라. 기쁜 소리<br>드높이 주님 부르라. 주님은 지존하고 지엄하시다.<br>온 누리의 크옵신 임금이시다.○<br>○환호 소리 높은 중에 하느님이 오르시도다.<br>나팔 소리 나는 중에 주님 오르시도다.<br>노래하라 노래하라, 하느님께 노래하라.<br>고를 타며 우리 왕께 노래를 하라.○<br>○하느님은 온 땅의 임금이니, 멋지게 고를<br>타며 노래 부르라. 하느님이 뭇 나라에<br>왕하시도다. 거룩하신 어좌에 앉으시도다.○ |
| 제 2독서 | 에페소서(Ephesians) 1,17-23<br><또는 히브 9,24-28;10,19-23>                                                                                                                                                                                                                                                                                   |
| 복음    | ○알렐루야.                                                                                                                                                                                                                                                                                                                                |
| 환호송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br>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br>있으리라.○                                                                                                                                                                                                                                                                       |
| 복음    | 루카(Luke) 24,46-53                                                                                                                                                                                                                                                                                                                     |
| 영성체송  |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br>있으리라. 알렐루야.                                                                                                                                                                                                                                                                                             |

### 오늘의 성가

|     | 청년미사(토요특전) | 낮 미사    |
|-----|------------|---------|
| 미사곡 | 51-58      | 33-42   |
| 입당  | 172        | 172     |
| 봉헌  | 382        | 261,259 |
| 성체  | 376        | 291,279 |
| 파견  | 334        | 165     |

## 2.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 생명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메시지 -

### ▶하느님의 영광이 인간의 얼굴에서 빛난다

우주의 광대함과 비교해 볼 때 인간은 아주 미소한 존재이다. 그렇지만 바로 이러한 대조가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낸다. "그를 신들보다 조금만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나이다." (시편 8,6) 하느님의 영광이 인간의 얼굴에서 빛나고 있다. 성 암브로시오가 정의하는 마음으로 말했듯이, 창조주께서는 인간 안에서 쉼 곳을 찾으신다. "여섯째 날은 끝났으며, 최고의 걸작을 만드는 일로써 세상의 창조는 끝이 납니다. 그 걸작이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마치 우주의 절정과도 같고, 모든 피조물 중에 최상의 것인 듯한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경건한 침묵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수행하셨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깊은 곳에 쉬고 계시며, 사람의 정신 속에, 그의 사고 속에 쉬고 계십니다. 결국 그분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님을 모방하고, 그분의 덕을 본받으며, 천상 은혜를 갈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주신 이 선물들 안에서 휴식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머물러 쉼 곳을 어디에다 마련하겠다는 말이나?.....내가 굽어보는 사람은 억눌려 그 마음이 찢어지고 나의 말을 송구스럽게 받는 사람이다.' (이사 66,1-2) 나는 이처럼 놀라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쉬시는 주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6). 불행하게도, 하느님의 경이로운 계획은 역사 안에 죄가 나타남으로써 손상을 입었다.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써 자신의 창조주를 거역했으며, 마침내 피조물을 숭배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하느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예배하고 섬겼다." (로마 1,25) 그 결과 인간은 자신의 인격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상을 왜곡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상들을 훼손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그것은 일치의 관계를 파괴적이고, 무관심하며, 적대적이고 심지어 살인까지 부르는 증오로 뒤바뀌었으므로 그 모상들을 훼손하려는 유혹이다.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인간에 대한 심오한 뜻은 왜곡되며, 사람들 사이의 일치는 손상된다.

인간의 생명 안에서 하느님의 모상은 새롭게 빛을 발하며, 하느님의 아드님이 인간의 육체를 취하여 오신 사건 안에서 그 모상은 완전한 모습을 다시 한 번 드러낸다.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형상이시며" (골로 1,15),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시요, 하느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이십니다." (히브 1,3) 그분께서는 성부의 완전한 모상이시다. 첫 번째 아담에게 주어진 생명의 계획은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을 이룬다. (◆계속)



##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당신께서 십자가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직접 현시하셨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승천 전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당신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와 회개를 선포하라는 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은 제자들만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 곧 성령과 함께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베타니아 근처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곳은 당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들였던 올리브 동산이 있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승천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다닌다는 것을 상기시키십니다. 제자들의 사명, 곧 복음화는 매우 고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을 기억한다면 이를 확실히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하기에 앞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파스카 예식, 성체성사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삶을 다시 가슴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루카 복음은 서두에서 즈카르야가 주님의 성소에서 분향할 때 세례자 요한의 탄생 예고를 들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루카는 이제 예수님의 승천으로 자신의 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이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한다고 전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전달하는 것, 죄의 용서와 회개를 외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사명이 되고 파스카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신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곧 타인에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을 삶으로 증거하면서 확실히 주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바탕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에 관한 진리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적 접촉으로 혹은 공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이웃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현대에는 홍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교회는 신문과 방송, 인터넷과 휴대폰 등을 이용해 복음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그들 각자의 마음에 복음이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이 회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안에 활동하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이 성전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복음 선포 사명을 실천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청해야 하겠습니다.

◆양해룡 사도요한 신부/  
서울대교구 사목국 선교전례사목부

### 이번 주 전례 봉사자

| 다음 주  | 토요특전<br>(창년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해설자   | 송민영<br>보나      | 남성철<br>베네딕도 | 최진수<br>에우세베오 |
| 제1독서자 | 이상용<br>엘리아     | 황지영<br>안젤라  | 유철희<br>바오로   |
| 제2독서자 | 백소영<br>프란체스카   | 서용숙<br>에스텔  | 유원재<br>안나    |
| 제물봉헌자 |                |             | 토머스<br>남 1반  |

### 다음 주 전례 봉사자

| 다음 주  | 토요특전<br>(창년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해설자   | 최태훈<br>야오스당    | 신덕례<br>바레사  | 염영숙<br>파리아  |
| 제1독서자 | 민슬기<br>로사리아    | 박진수<br>스테파노 | 이민상<br>요한   |
| 제2독서자 | 이성연<br>크리스티나   | 박혜경<br>레나타  | 박희자<br>마리아  |
| 제물봉헌자 |                |             | P.V.<br>1 반 |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주님 승천대축일**  
 \*\*\*\*\*  
 오늘 주일은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주님 승천 대축일 맞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겠지' 하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주님 승천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늘나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고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 승천 대축일마다 되새겨야 할 자세입니다. - 매일미사 중에서 -  
 \*\*\*\*\*

◆ 제7회 백삼위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 오늘 주일(16일), 낮미사(오전 10시) 후 운동장
- 주최: 사목회 ● 주관: 대전회
- 구역별 팀구성: 청팀-토런스 동, 서, 북구역  
 백팀-토런스 남, 하버/카슨, P.V.구역  
 주일학교/한국학교: 청팀(작수학년, 초록 티셔츠)  
 백팀(홀수학년, 흰색 티셔츠)
- 식사: 각 구역별로 준비(안나/요셉회는 해당 구역에서 준비, 매론청년회는 백팀이 준비)
- 종목: 피구, 오제비던지기, 어린이축구, 릴레이, 줄나리기 외-
- 기념품 증정과 다양한 일상생활용품들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사에 신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문의: 이크리스토퍼(796-6960), 김요한(740-1501)  
 김스테파노(926-2248), 현아오스당(594-9472)

◆ 성령강림 대축일 성령기도회

- 일시: 5월22일(토) 오후 4시~10시
- 장소: 성 프란치스코 성당(2040 Artesia Bl. Torrance)
- 강사: 양창우 요셉 신부(성골롬반 외방선교회)
- 대상: 남가주 전 신자
- 문의: 본당 성령기도회,  
 남가주 성령쇄신 봉사회 ☎(213)435-7570

◆ 백삼위 영어권 청년회 창립

영어권 청년회 창립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자녀가 친구들과 함께 참석할 수 있도

- 록 권고하시고, 자녀 e-mail 주소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첫모임: 5월23일(주일)오전 11시30분~오후 2시, 잔디구장
- 행사: Frisbee Football, 점심제공, 성서 및 친교 나누기
- 연락처: 청소년 본과 최에우세비오 jin7choi@yahoo.com  
 ☎(310)738-0230

◆ 안나/요셉회 봄철 온천 관광

- 일시/장소: 5월25일(화)레이크엘시노, 오전 7시30분 출발
- 55세 이상 형제 자매님들의 신청 바람. 56명 정원
- 회비: 교우 \$20, 외부인 \$30
- 신청: 이영희 카타리나 안나회장 ☎(310)518-1736  
 김금자 데레사 총무 ☎(310)539-9526

◆ 예비자 모집

- 예비자 교리반이 시작됩니다.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주변의 이웃들이 교회로 찾아올 수 있도록 전 신자들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 예정: 예수님 성탄절)
- 환영식: 6월20일(주일) 11시 미사후 강당
- 교리시간: 6월24일(목)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 장소: 2층 교리실

◆ 백삼위 서예반 개강

- 일시: 매주 주일 오후 1시30분~4시, 2층 유아실
- 회비: \$40 \* 강사: 박태홍(한국예총 미국 서예가협 회장)

◆ 판매중입니다!

- 한글-영어 합본 상장애식서: \$15
- 상본(성모님) 쿨링카드(전화카드): \$20 \* 사무실

◆ '교우 가정 방문'

지난 4월중순부터 선부님-수녀님께서 백삼위 본당 소속의 교우들을 방문하며 축복기도와 교적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역, 반 소속이 되지않은 기타 지역 신자들은 사무실에 등록하시면 '가정방문 축복기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5월16일(주일): 한마당 체육대회, 각구역별 점심 준비
- 5월23일(주일): 하버/카슨 1,2반(퐁보리 열무비빔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교무금              | 강덕희  | 구자운 | 김기정 | 김대우 | 김영경 | 김옥보 | 성전헌금                  | 구자운 | 김기정  | 김대우 | 김옥보 | 김원호 | 김정엽 |
|------------------|------|-----|-----|-----|-----|-----|-----------------------|-----|------|-----|-----|-----|-----|
|                  | 김원호  | 김정엽 | 김종렬 | 김철민 | 노새미 | 노천수 |                       | 김철민 | 노새미  | 노천수 | 노혜숙 | 문영일 | 문충환 |
| 노혜숙              | 문영일  | 문충환 | 민소예 | 배기엽 | 석순영 | 석순영 | 민소예                   | 배기엽 | 석순영  | 소정덕 | 신순철 | 신순철 | 안민수 |
| 소성덕              | 송재훈  | 송준규 | 신순철 | 안민수 | 안재만 | 안재만 | 안재만                   | 엄혜은 | 이경용  | 이상석 | 이용식 | 이용식 | 이현주 |
| 엄영숙              | 엄혜은  | 윤석구 | 이경용 | 이상석 | 이용식 | 이용식 | 이희영                   | 정규숙 | 지경수  | 채양석 | 최수복 | 최수복 | 최재은 |
| 이일길              | 이현주  | 이희영 | 임인조 | 정규숙 | 정연영 | 정연영 | 한연만                   | 한혁수 | 박재이름 |     |     |     |     |
| 지경수              | 채양석  | 최금옥 | 최수복 | 최재은 | 한연만 | 한연만 |                       |     |      |     |     |     |     |
| 한혁수              | 박재이름 |     |     |     |     |     |                       |     |      |     |     |     |     |
| 합계: \$3,720      |      |     |     |     |     |     | 합계: \$2,810           |     |      |     |     |     |     |
| 미사헌금: \$3,238.75 |      |     |     |     |     |     | 감사헌금: 석순영 신순철 배기엽 조운영 |     |      |     |     |     |     |



## 공지사항

### ◆ 주일학교 견진성사

- Reflection : 5월20일(목) 오후 7시
- 견진성사 : 5월21일(금) 오후 7시
- 대상 : 주일학교 견진성사 대상자(10학년 이상)
- 장소 : St. Margaret Mary (25511 Eshelman Av. Lomita)
- 견진성사자와 대부분은 위 일정에 꼭 참여해야 합니다.

### ◆ 첫영성체 예식

- 일시 : 6월6일(주일) 오전 11시 미사중
- 첫 고해성사/세례 및 리허설 : 6월5일(토) 오후 3시45분
- 대상 : 주일학교 2학년~6학년, 첫영성체 받지 않은 어린이
- 신청서: 편지로 우송됨
- 문의 : 강혜원 아네스 교장 ☎(310)780-0369

### ◆ 주일학교 Summer Camp

- 일시 : 6월25일(금)~27일(일) 금요일 오후2시 성당 출발
- 장소: Cachuma Lake (Santa Barbara)
- 대상: 3-12학년 \* 내용 :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
- 주거:단체 텐트 \* 참가비 : \$60
- 마감일: 6월6일 \* 참가신청: 주일학교 또는 사무실

###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9~12학년 \* 기간 : 7월23일(금)~25일(주일)
- 신청 : \$185(5월30일까지), \$195(5월30일 마감이후)
- 참고 웹사이트 : www.all4godcatholic.com
- 접수: 주일학교

## 5월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 소공동체 부 장                              |     | 김씨니 클라라               | (310)612-8840                            |
|---------------------------------------|-----|-----------------------|------------------------------------------|
| 차 장                                   |     | 박희자 마리아               | (310)325-6982                            |
| 차 장                                   |     | 이경수 헬레나               | (310)972-9193                            |
| 구역/장                                  | 반   | 반장                    | 장소/날짜                                    |
| 토런스 동<br>유현자<br>안나<br>320-3697        | 1   | 남명자 데레사<br>328-0847   | 5/16(주일) 본당 체육대회                         |
|                                       | 2   | 한창주 요아킴<br>530-7702   | 5/16(주일) 본당 체육대회                         |
|                                       | 3   | 신덕례 데레사<br>494-1390   | 신덕례 데레사 494-1390<br>5/20(목) 오후 8시10분 성당  |
|                                       | 4   | 정종미 클라라<br>377-4749   | 정종미 클라라 377-4749                         |
| 토런스 서<br>박정애<br>소화<br>데레사<br>218-7340 | 1   | 김순희 모니카<br>328-1817   | 5/16(주일) 본당 체육대회                         |
|                                       | 2   | 이크리스 아가토<br>619-7763  | 5/16(주일) 본당 체육대회                         |
|                                       | 3   | 장정진 베로니카<br>803-7798  | 5/16(주일) 본당 체육대회                         |
|                                       | 4   | 이은록 요셉<br>371-4645    | 이은록 요셉 371-4645                          |
| 토런스 남<br>박희자<br>마리아<br>325-6982       | 1   | 최옥희 데레사<br>378-4183   | 5/16(주일) 본당 체육대회                         |
|                                       | 2   | 이경수 헬레나<br>972-9193   | 5/16(주일) 본당 체육대회                         |
|                                       | 3   | 이혜선 안젤라<br>793-7733   | 이정아 리더아 213-200-9432<br>5/14(금) 오후 7시30분 |
|                                       | 4   | 이정훈 안셀모<br>908-8823   | 이정훈 안셀모 908-8823                         |
| 토런스 북<br>권병연<br>리디아<br>938-3255       | 1/2 | 최미열 클라라<br>895-8624   | 5/16(주일) 본당 체육대회                         |
|                                       | 3   | 대건회 : 거주지<br>역만으로 배속  | 대건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br>은 거주지역만으로 배속됩니다.   |
| 하버 카슨<br>윤남열<br>세라피나                  | 1/2 | 박혜경 레나타<br>808-5005   | 5/16(주일) 본당 체육대회                         |
|                                       | 3   | 이영희 카타리나<br>518-1736  |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
| P. V.<br>이정숙<br>스테파니<br>755-8360      | 1   | 최길숙 요세피나<br>997-9006  | 최양석 콜레&에스터(323)829-5313<br>5/14(금) 오후 7시 |
|                                       | 2   | 김숙희 유소사<br>544-4807   | 오석판 사무엘 750-6007<br>5/14(금) 오후 7시        |
|                                       | 3   | 박은혜 클라우디아<br>796-6763 | 이영석 크리스토퍼 796-6763<br>5/14(금) 오후 7시      |
|                                       | 4   | 강숙경 도미니카<br>541-0767  | 영희자보라 544-1009<br>5/11(화) 오전 10시30분      |

## 남가주 소식

### ◆ 제9회 남가주 M.E.천선골프대회

- 일시 : 5월18일(화) 오후 1시 티오프(등록 낮12시)
- 장소 : Moorpark Country Club ☎(803)532-2834  
11800 Championship Dr. Moorpark, CA 93021
- 회비 : \$100(중식 및 석식제공)
- 시상 : 메달리스트, 장타상, 근접상, 홀인원, 부부상 등 다양
- 문의 : 이남현 박시모 ☎(213) 272-3598

### ◆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후원회 성령강림대축일 하루 피정

- 일시 : 5월23일(주일) 오후 1시~5시
- 장소 : 성아그네스성당 한인회관(1451 Dana St. LA)
- 지도 : 양창우 요셉 선부
- 회비 없음 ☎(323)734-4946 후원회 사무실

## 이번 주 단체 모임

|                |                 |
|----------------|-----------------|
| 행사의 날, 빈첸시오 모임 | 백삼위 가족 한파당 체육대회 |
|----------------|-----------------|

## 다음 주 단체 모임

|          |       |
|----------|-------|
| 5월 사목상임위 | 오후 1시 |
|----------|-------|



## 디지털 세계의 사제와 사목: 말씀에 봉사하는 새로운 매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디지털 세계의 사제와 사목: 말씀에 봉사하는 새로운 매체”라는 올해 홍보 주일의 주제는 교회가 거행하고 있는 사제의 해와 때를 같이 하여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목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사제들은 하느님 말씀에 대한 그리고 하느님 말씀을 위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들은 언제나 최신 매체를 활용하여 사회와 관계를 맺고 더 폭넓은 대화를 촉진해 왔습니다. 오늘날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러한 매체는 효과적인 사제 직무를 위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사제의 첫째 의무는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사들을 통하여 하느님의 구원 은총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말씀의 부르심을 받고 모인 교회는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과 이루시는 친교의 표징이며 도구입니다. 모든 사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친교를 증진시키도록 부름 받았습니니다. 바로 여기에 사제 사명의 고결한 품위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사제는 바로 사도가 제기한 다음과 같은 도전에 특별한 방식으로 응답하는 이들입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로마 10,11.13-15)

젊은이들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화적 변화 속에서, 바로 사도가 제기한 복음 선포의 도전에 적절하게 대응하려면 반드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제는 최신 시청각 자원(영상, 비디오, 애니메이션, 블로그, 웹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복음을 선포하여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은 전통 커뮤니케이션 수단들과 더불어 대화와 복음화와 교리 교육을 위한 폭넓고 새로운 전망을 펼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세계에 참여하는 사제는 미디어를 다루는 솜씨보다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제다운 마음이 돋보여야 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우리 목자의 현존은, 현대인들, 특히 우리 시대에 불안과 혼란을 겪고 있

는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속해 있다.”(베네딕토 16세, 교황청에 한 연설, 2009.12.21.)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말씀은 ‘가상공간’에 펼쳐진 온갖 ‘고속도로’망의 수많은 교차로를 지나다니며 하느님께서 우리 시대를 포함하여 모든 시대에 현존하신다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세계에서 목자는 다른 종교인들, 비신자들, 여러 문화의 사람들과 만나게 되므로, 믿지 않는 이들, 낙담한 이들, 향구한 진리와 절대자에 대한 어렵 곳하지만 깊은 갈망을 지닌 이들을 세심히 배려하여야 합니다. 이사가 예언자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을 상상해 보았듯이(이사 56,7 참조), 웹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처럼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더 방대해진 디지털 세계는 인류 전체와 모든 개인을 위한 거대한 자원이 되고, 만남과 대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전은 또한 신자들에게 훌륭한 기회도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하는 이들에게는 어떠한 문도 닫혀 있을 수 없고 또 그러서도 안 됩니다. 특히 사제들에게 새로운 매체는 더 새롭고 폭넓은 사목의 가능성을 제공하여, 사제들이 교회 사명의 보편성을 구현하고, 폭넓고 참된 우정을 쌓으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영원하신 성자 예수님의 복음에 귀 기울임으로써 얻게 되는 새 생명을 현대 세계 안에서 증언하게 해 줍니다. 또한 사제들은 자기 직무의 궁극적인 성과가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늘 명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 안에서 그분을 만나 뵙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설교와 삶의 증거로 그분을 선포하고, 성사들, 특히 성체성사와 고해성사의 거행을 통해 그분을 알아 뵙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사제 여러분, 현대 커뮤니케이션의 특별한 가능성을 현명하게 활용하시기를 다시 한 번 권고합니다. 주님께서 현대 매체가 열어젖힌 새로운 ‘광장’에서 여러분 모두 열정적인 복음 선포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44차 홍보주일(5월16일)을 맞아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의 담화문(요약)